

지역 소식통

김제시, 교월동 봉월마을
자원순환 우수마을 인증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자원순환 우수마을로 교월동 봉월마을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제시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교월동 주민을 대상으로 자원순환 교육을 시범 운영하고 이후 교월동 46개 마을에 대한 자원순환 추진 실적을 평가했다.

이번 평가는 환경정비, 자원순환, 홍보·교육, 특수시책 등 4개 분야 11개 항목에 대한 실적 점검과 현지 확인을 통해 실시했다.

평가 결과 봉월마을이 우수마을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로 우수마을 인증 현판과 함께 향후 1년간 세대별로 종량제 봉투 20L 3매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겨울방학맞이
'함께 미디어 프로그램'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겨울방학을 맞아 시민들의 미디어 창작 역량 강화를 위해 김제시립도서관에서 '함께 미디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영기간은 2024년 1월 15일부터 19일까지이며, 15일과 16일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유튜브 구조대(숏폼 제작), 17일에는 원데이 드로잉(아이패드로 그리는 일러스트), 18일과 19일에는 내가 클레이 애니메이션 감동을 진행한다. 마지막 19일에는 성인을 대상으로 릴스 콘텐츠에 날개달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개인이 혼자서 콘텐츠를 기획해 제작하고 공유하는 1인 미디어 시대에 시민들의 자체 콘텐츠 제작에 도움을 주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프로그램 신청은 지난 18일부터 김제시립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받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독서문화진흥팀(063-540-4134)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다양한 미디어 제작 방법들을 배워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주요한 소통 도구로 활용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재정건전성 상향

0.4% 예산 증액... "인구증가·기업유치 성과"

대규모 국제 결혼에도 완주군은 예산을 증액하고, 세입이 증가하는 등 건전성을 보여줘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도내 일부 시군이 감액 예산을 편성하고, 별도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상황 속에서 완주군은 추가 지방채 발행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 없이 증액 예산을 편성해 큰 관심을 받았다.

완주군이 증액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던 요인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전년 대비 각각 9.81%, 9.07% 늘어나고 국도비 보조금도 6.11%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는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기업유치 활성화 등에 기인한다.

실제 완주군은 올해 들어 매달 세자리 수 인구가 늘고 있으며, 생활인구는 이미 10만 시대에 돌입했다. 유희태 군수 취임이후 기업유치를 서둘러

(췌)로젠, 진로지스틱, 동원로엑스 등 대규모 기업과의 계약을 연이어 성사시킨 결과다.

특히, 완주군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전년도 결산기준 재정분석 결과에서도 전년 대비 1단계 상향됐다.

자치단체의 재정 전반을 분석하는 재정진단에서 재정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등 총 14개 지표 중 10개 이상 지표가 개선됐다.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6개 지표 모두 개선됐는데 이는 2007년부터 2021년도까지 발행한 1,343억원의 채무가 지속적으로 상환돼 현재 343억 원의 잔여 채무만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추가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의 한도액을 2023년 303억원에서 2024년 433억원으로 130억원이 증가요인이 됐다.

경상재원의 증가와 지방채 상환에 따른 감소로 완주군의 재원 조달 능력이 향상됐다는 반증이다.

완주군의 효율적인 예산 운용 부분은 예산의 집행률과 이월률에서도 나타난다.

최근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발표한 '2022년도 결산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 집행현황 분석'에서 완주군은 군 단위 평균 집행률 78.1%보다 6%가 높은 84.1%의 집행률을 달성, 전국 82개 군 단위 중 5위를 기록했다.

이월률은 9.7%로 군 단위 평균 이월률 13.4%보다 낮아 전국 군 단위에서 두 번째로 가장 적었다.

완주군이 사전 예산편성 단계부터 세밀하게 편성하고, 적극적인 예산집행 정책을 펼쳤다는 의미다.

이렇게 탄탄한 재정 기반 위에 완주군은 2020년부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284억 원을 적립해 2024년도 완주 테크노밸리 2차 산업단지 채무상환에 대비하고 있다.

내년도 산단 토지 매입방식으로 보증채무를 전액 해소하게 되면, 향후 토지 매각을 통한 군 세입 가용재원으로 활용이 가능해 향후 몇 년간 든든한 재정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완주=염재복 기자



황혜경 (췌메이저스마트건설대표)은 21일 김제시에 고향사랑기부금 최고한도액인 500만 원과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

"김제시가 항상 발전하는 도시가 되기를"

황혜경 메이저 스마트 건설 대표,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황혜경 (췌메이저스마트건설대표)은 21일 김제시에 고향사랑기부금 최고한도액인 500만 원과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

김제시 용지면 구암리가 고향인 황혜경 대표는 전기 공시업을 주력으로 하는 (췌메이저 스마트 건설을 2016년 설립하여 운영 중이며 (췌메이저 스마트 건설은 2024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김제시 주관기업으로 선정됐다.

황혜경 대표는 "고향 김제에서 터전을 잡고 발전한 기업으로서 나의 고향 김제시가 항상 발전하고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가 되기를 소망한다"며 "작

은 정성이지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알차게 써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성주 김제시장은 "지역기업인의 고향사랑기부제 및 이웃돕기 기부 동참에 감사드리며 기탁해 주신 기금은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하며 지역기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2024년 청년근로자 알뜰 교통비 지원, 차매 어르신 인공지능 돌봄인형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용하고 이웃돕기 성금은 관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데 사용할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 2023년 전략작물 직불금 125억 지급

6045농가 22일부터 순차 지급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2023년 전략작물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22일부터 6,045 농가에 직불금 125억 원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이는 전북 시군에서 가장 많은 금액으로 동계작물 37억 원(7,421ha), 하계작물 59억 원(5,507ha), 이모작 연계 시 받는 인센티브가 32억 원(3,185ha)이다.

전략작물 직불제는 △식량자급률 제고 △쌀 적정 생산 유도 △논 이용률 향상 등을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한 제도이다. 기존 논활용(논이모작) 직불제와 유사하지만 동계작물 외에 논콩, 가루쌀, 조사료 등의 하계작물이 추가

되어 재배품목에 따라 ha당 50~480만 원을 지급한다.

김제시는 올해 하계 전략작물 품목으로 △논콩 5,415ha △가루쌀 274ha △조사료 197ha로 총 5,886ha가 신청·접수 됐으나 7월에 반복된 집중 폭우로 전략작물 침수피해가 컸다. 특히 논콩은(전국 논콩 재배면적의 25%, 전라북도 논콩 재배면적의 45.5%) 재배면적 거의 침수돼 피해가 극심했었다.

이에 김제시는 전략작물 침수 피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정성주 시장이 직접 전략작물 직불금 지급을 중앙정부에 수 차례 건의한 결과 농식품부가 이를 반영해 전략작물 재배 이행기준을 완화하여 지급토록 하였으며 전략

작물 재배 피해 농가가 전략작물을 재파종하거나 녹두, 들깨 등(벼, 녹비작물 제외) 다른 작물로 전환해 재배하더라도 직불금을 지급토록 했다.

전략작물 직불제도는 처음 시행하는 만큼 표본 조사가 아닌 전수조사를 통해 작물 재배 및 이모작 여부에 대하여 이행점검을 완료하고 지급 요건을 검증했다.

정 시장은 "전략작물직불금 지급으로 쌀 수급안정과 농가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내년에는 두류·가루쌀 품목 지급단가가 ha당 200만 원으로 인상되어 더 많은 농업인이 수혜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올해 주택·건축행정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6개분야 30개항목 51개 세부평가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전북도에서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주택·건축 행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전라북도 주택·건축 행정 종합평가는 주택·건축 행정업무에 대하여 지

난 1년간 우수성과를 발굴하고 우수 기관과 우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통해 업무 동기 부여 및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총 6개 분야, 30개 항목, 51개 세부지표에 대해 평가하는 제도이다.

김제시는 주거환경, 주거복지, 건축행정 등 전 분야에 포괄적인 업무 추

진으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정성주 시장은 "앞으로도 김제시의 주택·건축 행정 수준을 더욱 향상시켜 취약계층 주거 안정과 주거환경 개선 등 시민들이 만족하는 주택·건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사회적경제 1년... 소셜굿즈 한마당 성료

영상 공유회·작품 전시 등 이벤트

완주군 1년의 사회적경제를 되돌아보는 'Good-bye 2023 소셜굿즈 한마당'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21일 완주군은 완주경제센터 강당에서 유희태 완주군수를 비롯해 완주 사회적경제 조직 종사자, 활동가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셜굿즈 한마당을 열었다.

완주군이 주최하고 완주소셜굿즈센터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우리 더불어 숲이 되자'를 주제로, 완주군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사회적 가치를 위해 활동한 공동체들의 노고와 성과를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한마당에서는 △올해의 소셜굿즈 어워드 △소셜굿즈 영상 공유회 △사회적경제 제품 및 사진 전시 △참중과 퀴즈쇼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돼 큰 관심을 끌었다.

특히, 한 해 동안 완주군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동체에게 감사와 응원의 인사를 전하고자 마련한 2023 올해의 소셜굿즈 어워드에는 2013년부터 장애 아동들의 재활과 치료를 도우며 사회적 가치 확산에 힘써 온 이랑협동조합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어 완주팔하모닉과 공유마을사회적협동조합이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그 외 7개 단체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지속성장 가능한 사회적경제 1번지 완주를 만드는 데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